

# 광주·전남, 잇단 장마·집중호우에 평년보다 강수량 ↑

올해 광주·전남 지역은 평년보다 장마가 길고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기상청이 발표한 2020년 여름철 기상 특성 분석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장마는 6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38일간 지속됐다.

장마 기간은 평년(1981~2010년) 32일보다 6일 길었으며, 기상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3년 이후 10번째로 긴 장마였다.

장마가 끝난 뒤에도 덥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 따라 수증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8월 중 강한 강수대가 자주 형성돼 많은 비가 내렸다.

올 여름철(6~8월) 강수량은 995.3mm였다. 기상관측사상 여름철 최대 강수량 7위로 나타났다.

평년(1981~2010년)의 634.6~874.6mm보다 크게 웃돌았다. 강수일수도 42.3일(역대 11위)이나 됐다.

여름철 평균기온은 24.2도로 평년(23.9도)과

평년보다 긴 38일간 장마 지속...강수량도 역대 7위

7월 최고기온이 6월보다 낮기는 기상관측이래 처음

북태평양고기압 남~서쪽 확장...강한 비구름대 형성

비슷했으나 월별로 기온 변동이 컸다.

6월에는 이른 더위가 나타나 평년보다 1도 가량 높았으나, 7월은 장마가 길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 특히 6월보다 최고기온이 낮은 7월은 기상관측사상 올 여름이 처음이었다.

8월에는 폭염·열대야가 월말까지 이어져 평년보다 더웠다.

폭염일수는 5.3일로 평년 수준이었으나 열대야 기간은 16.8일로 비교적 길었다.

폭염일수는 광주가 13일로 가장 많았으나, 폭염 최장지속일수는 장흥이 7일(8월 14~20일)로 가장 길었다. 목표는 열대야 일수가 26

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19일간(7월29일~8월16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 최장기록을 세웠다.

광주기상청은 장마가 7월 말까지 이어진 뒤 8월 중반까지 티벳·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무더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태풍은 올 여름철 8개가 발생해 평년 11.2개보다 적었다. 이 가운데 제5호 '장미', 제8호 '바비', 제9호 '마이삭'이 한반도에 영향을 줬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남에서 서로 크게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부근에서 정체전선이 지속해서 활성화돼 장마철이 길었다"면서 "장마가 끝난 뒤에도 정체전선에



서 발달한 남북으로 폭이 좁은 강한 강수대가 지속적으로 발달,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분석

유우나기자

## 광주 공무원 중 10%만 '지방의회 제 역할'...비위 백태 드러나

권력 사유화...식비 떠넘기고 관용차 운전까지 시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북구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2일 광주 북구의회 앞에서 수의계약 비리를 저지른 백순선 구의원 제명을 촉구 하고 있다.

광주지역 공무원 10명 중 1명 만이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감시와 입법활동 등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응답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는 최근 조합원 5600여 명 중 3375명이 참여한 '지방의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집행부 견제·감시와 입법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 10%만 '매우 또는 약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56%가 '보통이다'고 답했으나, 부정 답변도 34%를 차지했다.

의회 신뢰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가 '불신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설문 응답 공무원들은 의원이 갖춰야 할 자격으로 탈권위 의식(23%)을 꼽았다. 이어

도덕성(22%), 민주적 의사소통(18%) 순이었다.

의정 불만족 사유로는 공무원 상대 각종 갑질(40%), 각종 이권 개입(29%), 정책대안 제시 능력 결여(23%)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5%가 의원들의 공무원 대상 갑질이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요구(32%) ▲권위적 태도(30%) ▲각종 이권개입(15%) ▲처리불가 민원 반복 요구(1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 자신의 민원이 관철되지 않으면 보복 조치로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정확한 요점 없이 몇 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등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심성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5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의원 또는 보좌관에 의한 알선·청탁·인사개입 등 특혜 요구가 있다고 답한 비율도 56%에 달했다.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도 53%가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지방의원 비위 사례도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일부 의원들은 특정인에 대한 일자리, 특정업체 수의계약 등을 요구했고 관급 공사 자체 선정에 관여하기도 했다. 인·허가 업무 상 법령 위배 행위를 지시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소속정당의 권리당원을 모집하거나 의회 홍보예산을 사적 유용하는가 하면, 친인척

운영 시설에 대한 특별 대우를 요구했다. 또 생일이래며 선물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면 불필요한 민원 등으로 괴롭힘을 일삼기도 했다.

북구의회에서는 무더기 의원 비위가 제보됐다.

A의원은 이권이 연루된 사업 추진을 부탁하고 선심성 사업비를 편성했으며, B의원 역시 자신의 사업에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었다.

C의원은 최근 모 시장 상인회와 갈등을 겪은 뒤 해당 시장 활성화 사업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보복성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의회 D의원은 점심·저녁 식사 동석을 요구하면서 식비는 내지 않았으며,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고성을 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적 일정에 공무원에게 관용 차량 운전요구, 갑질을 일삼았다는 제보도 있었다.

응답 공무원의 81%는 지방의원의 각종 비위·비리 행위에 대해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책임있는 자세와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의원 비위가 반복되는 이유로는 약한 처벌기준(35%), 개개인의 윤리 의식 결여(25%), 특정 정당 일당독식 구조에 따른 책임정치 실종(19%), 집행부 묵인 또는 봐주기(16%) 등을 꼽았다.

김민정기자

## "추미애 아들, 정상생활 못할 정도다"

친척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서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관련 특혜 의혹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추 장관 아들의 수료식날 부대배치 청탁을 했다고 보도된 추 장관 아들 친척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9일 추 장관 변호인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친척인 서모씨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제보자인 A대령,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추 장관 측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고발장 접수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서 일병(추 장관 아들)은 정상적 생활을 못할만큼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신 의원은 직접 녹

취록을 받아 공개한 것어서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한 이유에 대해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면 영향력을 미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 변호사는 "지금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응하고 있는데, 팩트체크가 안됐거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SBS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A대령과 대화를 한 녹취록을 보도했다.

녹취록에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인 A대령이 수료식 날 부대배치와 관련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추 장관의 남편, 시어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을 전부를 모아놓고 자대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날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며 "특히 90세가 넘는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무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당시 수료식에는 추 장관 남편·시어머니, 친척 등 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선욱기자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